

정 통 부 , ‘ 3 D 비 전 2 0 1 0 ’ 국 책 사 업 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최근 입체 3D 디스플레이 발전계획을 담은 '3D 비전 2010' 전략 수립을 완료했다. 이로써 예산협의를 끝나는 대로 국책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산·학·연 공동으로 방송·게임·통신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3D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3D 비전 2010' 전략이 추진되면 TV·휴대폰·MP3플레이어·DMB단말기·디지털카메라·디지털캠코더 등 멀티미디어 기기의 디스플레이와 음향이 3D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0년 전후로 입체영상을 구현하기 위해 통신 및 방송시스템, 전송장비, 단말기 대부분이 교체될 것으로 보여 국내 정보가전 및 정보통신 부문에 새로운 거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D 입체영상콘텐츠 기술 ▲3D 방송시스템 기술 ▲3D 통신시스템 기술 ▲3D 게임시스템 기술 ▲3D 입체영상 공통기반기술 ▲3D 입체영상 응용기반기술 등을 대형 연구과제로 선정, 연구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이 전략은 세계 선도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지난 3월 진장관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어 산·학·연 관계자 10여 명에 의해 준비돼 왔다. 전략 수립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I)·전자부품연구원(KETI) 등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삼성전자·LG전자·KBS 등 기업 및 방송사, 대학교수들이 동참했다.

외 통 부 , 제 5 차 한 · 중 산 업 교 류 회 개 최

국내 IT 중소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중 IT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5차 한·중 산업교류회가 지난 11월 22일~25일 4일에 걸쳐 중국 상해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와 서울시(시장 이명박)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전자정부 구축 우수사례를 북경행사에서 발표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무문서관리, 시스템 트래픽 및 통합, 보안 등 전자정부관련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유망 중소기업 21개사가 참가하여 중국 측 전자정부 관련 IT기업과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중 양국의 전자정부 구축경험과 이와 관련된 IT기술 교류가 이루어졌고, 양국 기업 간에 다양한 파트너십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촉진되어 정보통신분야 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은 상해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활동이 원활하도록 상해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상해시 진출 기업을 직접 만나 현지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과 발전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중 기 청 , 혁 신 중 소 기 업 에 2 조 7 5 0 0 억 원 집 중 지 원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최근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정책자금 개편방향 및 운용계획안을 공개했다. 공청회에서 소개된 중기청의 2006년 정책자금은 구조개선자금, 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자금 등 6종으로 약 2조 7500억원 규모이다. 이것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되고, 기업의 신용상태 및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정책자금 금리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혁신형 기업 기준을 재설정하고, 혁신형 기업은 직접대출 위주로, 일반형 기업은 대리대출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혁신형 기업은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으로 구분되는데, 이노비즈, 벤처기업, 신기술인증기업, 기술개발 의지가 강한 기업 등은 기술혁신 분야로, 기업 또는 업종 특성상 혁신성이 내재된 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 경영혁신 의지가 강한 기업 등은 경영혁신 분야로 포함시켰다.

이처럼 혁신형 기업 기준이 재설정되면서 벤처기업,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참여 기업 등이 신규로 혁신형 기업에 추가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군 관련 영위기업, 주5일제 실시 기업 등이 제외된다. 또 민간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우량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등은 정책자금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데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자보증제를 활성화하고 소액운전자금의 경우 간편 대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중기청, 향토산업 신기술융합화 기술 사업에 25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향토산업 신기술융합화 개발사업'에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융합화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특산물 관련 향토산업과 IT, BT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1등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사업은 최근 전통산업과 첨단기술 또는 첨단기술 간 융합신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는 추세에 부응해 향토자원의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과 혁신능력을 배양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궁극적으로 향토산업이 지역경제 성장핵심산업의 한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며,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

중기청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광역권(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단위로 1~2개씩 총 5개 내외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발기획단계에서 사업화단계까지 과제당 총 5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75%까지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은 지역대표상품으로 활약하며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성과에 따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중진공, 수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브랜드화 추가 지원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자체 브랜드 개발, 브랜드 경영 컨설팅 및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모집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수출이 매년 양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자체 브랜드 보유현황은 29%(대기업은 65%)에 머물고 있으며, OEM 수출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한계 극복을 돕고자 전문 업체의 컨설팅을 통한 브랜드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목표 시장에 적합한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선, 국제상표 출원, 해외 현지 브랜드 마케팅 등이 포함된다.

참여 신청은 국제조달정보망 홈페이지(www.b2g.go.kr)에서 받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마케팅지원처(02-769-6598)로 하면 된다.

기술표준원, 나노기술 국제표준화에 본격 착수

나노기술 시장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ISO/TC229(나노기술분야) 국제총회가 지난 11월 런던에서 개최됨에 따라, ISO를 중심으로 한 나노기술 국제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17개국 130여 명의 나노기술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내년 11월 총회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되어, 나노기술분야 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이슈는 신규 기술위원회의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며, 인류의 건강과 직결되는 나노소재 및 응용제품의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우리나라도 나노기술 개발 및 표준화 동향과 카본나노튜브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통해 참가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냄으로써 나노기술표준화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과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독일에 이어 나노기술 수준 세계 4위로 랭크되었다. 앞으로 나노시장 점유율 면

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의 선점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나노기술분야 국제표준화총회는 나노기술표준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배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
사
·
사
업

NEWS

Hi Seoul 브랜드사업, 2006년도 신규기업 공모

서울시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 권오남)은 우수한 기술력과 상품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브랜드력의 열세로 홍보 및 마케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소재 우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의 'Hi Seoul'을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에 참여할 2006년도 신규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 * 신청기간 | 2005년 12월 5일(월)까지
- * 신청자격 |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한 서울 소재 기업
- * 모집분야 | 패션,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생활용품 4개 분야
- * 선정 시 혜택 | Hi Seoul 브랜드 사용권 부여, 홍보 및 종합 마케팅 지원
- * 우대조건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전문기업 중점 선정
- * 문 의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하이서울마케팅팀 (02-6283-1017, 1018, 1021)

여
성
벤
처
협
회

NEWS

'창조적 여성리더 포럼의 밤' 개최

한국여성벤처협회는 회원사 및 각 회원사의 사업 파트너를 초청해 송년의 밤 행사와 겸한 '창조적 여성리더 포럼의 밤'을 개최합니다.

- * 일시 | 2005년 12월 12일(월) 오후 6시~9시
- * 장소 | 한강 유람선 (잠실선착장 → 여의도 → 잠실선착장) *오후 5시 40분까지 승선
- * 행사일정
1부 : 개회식 · 2부 : 포럼(주제 강연 - 'Only the Creative Survive' (이노디자인 김영세 대표)) · 3부 : 송년의 밤
- * 접수 및 문의처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 이은영 대리(전화 02-6009-8501, 8505 팩스 02-6009-8502 이메일 kowwa@kowwa.or.kr)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wwa.or.kr) 참조

KOVWA 이랜서 수료식 개최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중소기업의 당면과제인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여성 전문인력의 전문화와 경제활동 참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한 이랜서 사업의 2005년도 수료식이 개최됩니다.

- * 주제 | 2005 KOVWA 이랜서 수료식 '욕심 있는 여자들의 저녁식사'
- * 일시 | 2005년 12월 13일(화)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 장소 | 큐브 아고라(지하철 2·3호선 교대역)
- * 주최 | 중소기업청
- * 주관 | 한국여성벤처협회
- * 행사 프로그램
오프닝(교류의 장) · 2005 KOVWA 이랜서 수료식 · 축사(한국여성벤처협회 송혜자 회장) · 초청 특강(RIGHT Consultants Korea, 호텔 리츠칼튼서울, 한국맥도널드) · 교류 & 식사
- * 이랜서와 취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KOVWA 이랜서 홍보 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담당자 : 홍보 마케팅 윤해규 팀장(02-583-7845)

